

光日春秋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장석주
시인

진보 대통령이 끊임없이 보수 정당의 인사를 관찰 후 보자로 내세우며 그 청문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학벌과 화려한 인맥을 뒷배 삼아 국회의원직에 올랐던 그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 흡결을 뾰족하게 따져 묻는 의원에게 항변을 했다.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이의 드러난 처신들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삐딱하고 지저분했다.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며 개인 영장을 꾀하며 부를 쌓은 그이의 누추한 인생 역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낙마했다.

아무 흥결을 남기지 않고 대쪽같이 바르게 한 생애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살다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오점이나 얼룩이 생긴다. 내 주변에서도 제 안의 세속적 유행과 미성숙한 처신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역시 마흔 중반에 큰 위기를 맞았다. 빛나간 선택과 탐욕으로 생활이 폐해하고 문란해졌을 때가 있었다. 나는 시골로 낙향해서 그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다.

시골집 아래에는 너른 저수지가 있었다. 겨울철이 지나면 저수지 주변에 군락을 이룬 버드나무 가지에 연초록 물이 올라와 불만 했지만 나는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굴레에서 의기소침한 채 웅크렸다. 삶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그때 삶의 지침서로 삼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다. 그걸 옆에 끼고 읽을 때 ‘상선 약수’(上善若水)나 ‘대지약수’(大直若屈), ‘광이불요’(光而不耀) 등등 주제 같은 구절에서 내 마음의 금(琴)이 맑은 소리를 냈다. 물처럼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고, 곧음을 뿐내지 않고 구부리진 듯 차세를 하며, 빛나되 번쩍거리지 않으려고 마음 속 결의를 다지곤 했다.

젊었을 땐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다. 지각이 모자랐던 탓에 빛어진 일이었다. 젊음이 사라진 뒤 천금 같은 젊음을 낭비한 걸 깊이 자책했다. 무른 것은 부서지기 쉽고, 미약한 것은 흩어진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늙은 뒤에야 근력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는 떨어지며, 기억력도 나빠지고, 인생의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실감을 했다. 노년기란 불가피하게 흑한 속 겨울나무의 처지와 같다. 젊었을 때 겨울나무를 보면 이런 시를 끼적였다.

잠시 들었다 가는 걸입니다/외롭고 지친 밤길을 멈추고 바라보는/빈 벽판//빨리 저는 겨울 저녁 해거름/속에/말없이 서 있는/흘 없는/흔 하나//당분간 폐업 합니다 이 들끓는 영혼을/잎사귀를 떼어 버릴 때/마음도 떼어 버리고/문폐도 내렸습니다//그림자/하나/길

게 그을고/깡마른 체구로 서 있습니다’. (출시, ‘겨울나무’ 전문) 겨울나무는 제 잎을 다 떨군 채 해거름 속에 말없이 서 있다. 잎을 다 떨구고 겨울을 나는 나무는 무육한 존재의 표상으로 삼을 만하다. 나이 들어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제 안의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청춘의 시기는 인성이 무른 탓에 치기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런 탓에 인생에 후회와 변민이 많아진다. 나는 불여름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로 성큼 들어섰다. 젊었을 땐 과오와 실패도 너그럽게 용서받았다. 하지만 장년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기 힘들다. 어른이란 제 선택과 행위들에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사리분별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혈迸은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자문한다. 그 물음은 한번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거듭해서 제 내면의 청문회에 스스로를 세우고 따져 물어야 한다. 지저분한 행적의 세목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낙마한 장관 지명자는 그런 물음을 통한 자기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이의 인생은 탐욕이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삼켜버린 사례일 테다. 그이가 변명 삼아 내놓은 말 중,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에 한 점의 진실이 없지 않지만 그게 누추한 제 과거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누구도 제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 실패, 탐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벽 기도를 하노라면

종교칼럼

충현
광주 종교사 주지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다행(多幸),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다”는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그러나 혼자 를 그대로 풀이하면 행복함이 많다, 아주 행복하다는 뜻이다.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일이 생기니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행복한 것이 ‘다행’이라는 말의 본래 뜻인 모양이다. 아마도 새벽 기도를 할 때 만큼은 행복한 모양이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상 소식을 둘러본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득 생각한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할 목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래서 행복을 갈구하는 것은 어찌면 행복하지 못함을 실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잊을만 하면 한번씩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삶의 무미건조함을 느끼곤 했다. 신변집집, 뒷담화, 맛있는 음식, 드라이브, 쇼핑, 사우나, 인터넷 서핑…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도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귀의하는 마음은 신에게 돌아가 의지함을 통해 나

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함이다. 그래서 신은 일종의 도구이다. 지금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다만 신에게 존재성을 강하게 부여하면 서구적 관점의 종교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 반면 오직 스스로에게만 의지하는 수행은 ‘지금의 나’라는 굴레에 보이지 않게 속박당할 위험성을 품고 있다.

예불과 기도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행위다.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귀의의 대상이라면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굴레를 벗어났다면 부처님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굴레를 벗어난 느낌을 굳이 존재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거나 매일 예불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다행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태어날 때 이유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 역시 없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은 목적 있는 삶이 아니다.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이다.

목적이 부여되는 유일한 삶은 수행하는 삶이다. 수행이란 나의 허기를 채우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행위이다.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하지 않더라도 역시 좋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선물처럼 찾아왔으니 이 또한 고마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행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삶이 곧 수행이라면 매 순간이 목적이다. ‘카르페디엠’하니 일일시호 일이다.

행정통합, 3개 권역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기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모든 뉴스를 빛나고 있다.

통합 과정은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를 분산 배치하고 권역마다 산업과 기능을 균형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통합하려는 주된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속에서 규모경제를 이루고 정주인구 부족을 생활인구 확대로 보완하면서 정부지원과 각종 권한이양과 특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행정과 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지역내 상생·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절실히이다. 특별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0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교통망 관련 조항이 이것 저것 들어 있다. 고속도로망은 사실 대체로 갖춰져 있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광역철도망이다. 특히 광주-목포간, 광주-순천간, 목포-순천간, 광양-순천-여수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직도 미작공).

“①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면서 ② 지방소멸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이 ③ 가장 늦게 광역철도를 도입하면서 ④ 가장 짧은 구간에 대해 ⑤ 가장 예산이 많이 들면서 ⑥ 가장 늦게 개통하는 방식으로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시에 만회할 좋은 기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하게 뒤쳐진 광역철도망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첫째,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지역이 지정되어야 국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울경권은 거제에서 부산을 거쳐 울산, 경주까지 160km 이상의 거리에 광역교통관리 지역이 지정돼 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에서 1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청송군까지 광역교통망으로 지정돼 있다.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충청권은 대부분의 지역에 광역철도망 계획이 이미 수립 완료돼 있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기반돼 있다. 우리 지역만 광주와 주변 5개 시군으로 한정돼 있다. 특별법 특례로 광주-목포간, 광주-순천-여수-광양간 지역이 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둘째, 우리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

社說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비단 광주·전남 지역민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 5·18 단체 등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개헌 국민주권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때마침 정치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를 통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의장은 그제 광주를 찾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빗장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응급실 뻥튀기 없애자는 비판만 하는 의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일명 ‘응급실 뻥튀기’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체’를 이달 말부터 호남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은 것도 광주시가 구축해 호평받고 있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점검하고 전국 모델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광주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에게 가용병상과 의료진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700여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다. 전원 요청부터 수락 및 거절 사유, 관련 영상과 대화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원 사정을 이유로 환자 수용 거부 예방하는 역할도 크다.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최근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에게 가용병상과 의료진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700여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다. 전원 요청부터 수락 및 거절 사유, 관련 영상과 대화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원 사정을 이유로 환자 수용 거부 예방하는 역할도 크다.

無等鼓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표한 ‘기부트렌드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러니하게 ‘AI 시대의 인간다움’이다. 기부로 나누는 감정, 가치를 만드는 사람, 직접 참여·행동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까지…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지만 기부만큼은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책임, 선택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이는 기부의 변화를 소액화·일상화·참여형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요즘의 기부는 더 작아지고, 더 자주 일어나며,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

기다.

일상이 된 기부

기부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참여하는 정기 후원, 걷기나 달리기를 통해 이어지는 챌린지 기부, 포인트나 자동이체로 이뤄지는 소액 나눔까지. 기부는 더 이상 결심이 필요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생활 속 선택 중 하나가 됐다. 얼마를 했는가보다 ‘계속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마무리된 연말 연시 기부 캠페인 ‘사랑의 운동대’ 결과는 우리 지역에 스며든 나눔의 온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15.6도와 101도를 기록하며 목표액을 넘어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총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단순한 감소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고액 기부가 줄어든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닐까. 부담을 줄이는 대신 참여의 문턱을 낮춘 기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

일지도 모른다. ‘사랑의 운동대’가 100도를 넘겼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이

지역 곳곳에 살아 있다는 증거다.

기부는 더 가벼워졌지만 의미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 스며들며 지속성을 얻고 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택이 이어질 때 나눔은 오래간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기부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번 겨울, 운동대가 보여준 숫자는 그 마음이 아직 충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光州日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자 원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 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여론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자인부 220-0697	기획부 220-0634 예술부 220-0692 경제부 220-0661 여론부 220-0693 디자인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